



농협 남원시지부, '아침밥 먹기 캠페인' 진행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20일, 도농사랑업 무협약기관인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 남부사무소를 방문, The 맛있는 전북 남원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농신보안원권역보조센터(센터장 이성로),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 남부사무소(소장 이지영)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남원시지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한 식습관 정립과 우리쌀 소비확대를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 의지를 독려하며,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 남부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남원 농산물인 춘향에인 참미를 나눠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오영석 지부장은 "건강도 챙기고, 농민도 돕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범도민에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범군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21일 고창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고창II센터)를 찾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와 지역사회 범군민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연이어 진행했다.

NH농협 고창군지부는 지난 8월 5일 고창군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나눔 250포를 전달하는 등 최근 고창군 범군민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NH농협 고창군지부 이미정 지부장과 고창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고창 II센터) 천옥희 센터장과 관계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미정 지부장은 행사에서 "우리 지역에서 아침밥 먹기 생활습관을 통해 지역 산지에서 먼저 고창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창군 쌀 산발발전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함께 해 나가자"고 취지를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20일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4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일 의장, 이만재 부의장, 최재기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자치행정위원장, 오명재 경제산업위원장이 참여하여 훈련 상황과 주요 일정 등을 보고 받고,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근무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

박일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인 만큼 전신상황에 준하여 을지연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 훈련으로 올해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청소년들, 中 칭다오에서 '꿈·희망 캠프'

23일까지 14명 참여... 칭다오 도민회 경험담 공유하며 자긍심 고취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제9회 중국 칭다오 청소년 꿈·희망 캠프'를 전북 모범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4박 5일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9회 중국 칭다오 청소년 꿈·희망 캠프는 재중국 칭다오 전북도민회(김계신 회장) 초청으로 전주 효문중학교 유영민 학생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각 1명씩 모두 14명의 모범 청소년을 선발하여 중국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 등 해외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국제적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추진됐다.

제9회 중국 칭다오 청소년 꿈·희망 캠프에서는 중국 칭다오의 독일, 일본 식민지 시절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유적지 등을 견학하여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재중국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외교관으로써의 역할과 주요 업무 및 공공외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들과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는 전북도민회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북 출신 선배님들이 중국에서 겪은 경험담을 공유하며, 낯선 땅에서도 도전하고 노력하는 정신을 배우고 세계속의 전북인이라는 자부심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임실 삼계중학교 유수현 학생은



"중국 칭다오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넓은 시야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중국 칭다오 전북도민회 김계신 회장은 "이번으로 9회째를 맞이한 캠프는 전북 청소년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도전과 꿈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다. 앞으로 전북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경북도 청소년 문화교류 성황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상북도와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영호남 다음 세대의 화합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청소년 문화교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

영호남 청소년들은 지난 16일 무주청소년수련관에서 첫 만남을 갖고 간단한 환영 의식을 진행했으며, 영호남을 품고 있는 덕유산(항적봉)에 함께 올라 서로의 지역을 바라보며 지역을 넘어 상호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정 내에는 한복 체험, 한지 염서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완판본문화관 등을 방문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청소년 30명과 경상북도 포함 청소년 30명을 사전 선발해 진행했으며, 협의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서울, 경북 등과 방방 및 내방 행사를 통해 청소년 국내 교류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경상북도 청소년들을 초대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력을 알리고,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만호 기자

24일 장수 계북면 파곡마을 일원서 '제2회 파파실 마을축제'

장수군 계북면 파곡마을(이장 박복순) 화관 앞 참고 일원에서 24일 '제2회 파파실 마을축제'가 개최된다. '파파실'은 이 마을의 원지명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파파실 마을축제는 선영 벌초를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전통 꽃상여놀이와, 옛날사진전시회, 음악회 등을 함께 즐기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허심탄회하게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5시 동구밖에서 출발해 마을길을 한바퀴 돌아오는 전통 꽃상여 행렬이 재현되고, 일몰 후엔 수백개의 청사초롱에 불이 밝혀지며 장관을 이룬 골목길을 걷는 별빛야행에 참여할 수 있다. 만찬 후 참고 안에 마련된 메인무대에서 시 낭송과 무술시범이 펼쳐지고, 사물놀이로 시작으로, 주민합창단, 색소폰, 하모니카, 기타 공연 및 주민들의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산골음악회가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전일유 마을축제제천위원장은 "주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



지난해 열린 '제1회 파파실 마을축제'

준비하고 즐기는 마을축제가 향후 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함으로써 마을의 화합과 지방소멸위기 대응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동동동 지역사회, 착한가게 19호점 현판 전달

남원시 동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선자, 서덕교)는 21일, 1일기구 소통행정을 통한 가정방문에서 발굴한 한용정읍점(대표 강희정)에 착한가게 19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 (월 3만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희정 대표는 "착한가게 지정에 힘입어 더욱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소선자 동장은 "착한가게를 통하여 동의 든든한 후원자로 동참해 주신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곳부터 가지있게 나누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2024 '그린' 환경그림 공모전 시상식... 100명 수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과 굿네이버스 전북 지역본부(본부장 김경환)가 주관한 '2024 그린(green)환경그림 공모전'에서 정상현(전주문학초), 이다은(전주양현초) 학생이 각각 저학년부, 고학년부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이 인식하는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관한 생각과 기대를 표현한 그림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경 및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발전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기 위한 것으로 도내 초등학교생 총 607명이 참여했으며, 전문심사위원들이 공정함 심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공익성 있는 우수 수상 작품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전북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팀 교육국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정문 본부장,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김경환 본부장,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 수상학생 및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상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외에도 최우수상인 전북은행장상엔 오수민(전주서원초), 강희천(군산용문초) 학생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상엔 한서인(전주



양현초), 김서윤(전주양현초) 학생이 받았으며 이 외에도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00명의 학생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준 덕분에 어른들도 환경보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ESG 경영 실천으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보건소, 어르신 대상 무료 눈검진 진행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8월 20일,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 204명을 대상으로 눈질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무료 안과 검진을 진행했다.

검진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며, 한국실명예방재단 소속 안과 전문의 2명과 검진 진행요원 5명이 참여해 △문진 △시력·굴절·안압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저 검사 △정밀 검사 등을 실시했다.

검진 결과 및 눈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진의 1:1 상담과 돌보기, 안약, 인공눈물, 항생제, 눈 관리 관련 소책자 등을 제공했으며, 검진 결과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눈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 건강 중요성의 인식을 높이고 안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